

존 스튜어트 밀에 있어서 개혁주의의 철학적 토대*

宋 鉉 浩**

〈 目 次 〉

- I. 머리말
- II. 시대적 배경
- III. 개혁의 목표, 선행조건 및 가치원리
- IV. 개혁의 방법 - 漸進主義
- V. 맺음말

I. 머리말

존 스튜어트 밀(1806-73)은 스코티쉬 계몽주의 전통의 마지막 章을 장식한 동시에 그 발전을 절정에 올려 놓은 위대한 사회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한편에서 19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융성한 발전과, 다른 한편에서 그것에 기초해서 제기된 민주화의 요구로부터 생긴 여러가지 중요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및 도덕적 문제의 성격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과 정책처방을 제공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밀의 노력은 특히 英國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사회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을 지향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부분적으로 舊 사회주의권이 심한 체제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결과로, 그리

* 이 논문은 교육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공동연구과제 중 필자가 담당한 論題의 일부로서 작성되었음. 필자는 익명의 심사위의 비평에 대해 감사드린다.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리고 또 부분적으로 개혁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애덤 스미스와 더불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적 개혁사상에 관한 연구가 학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趙 淳 外(1992)].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밀의 개혁사상을 배태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주요 문제들, 그리고 그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개혁 프로그램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趙 淳(1992); 朴世逸(1992); 朴 興基(1992); 李 之舜(199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밀의 개혁주의 밑바탕에 있는 철학적 원리에 관해서는 - 산발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밀의 거의 모든 저작에 근거하여 밀의 자유주의적 개혁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해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완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문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에 집중한다. 이 논문이 밀의 공리주의, 자유론 및 실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시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第Ⅱ節은 밀의 개혁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개관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대적 배경'은 통상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상이한 - 나아가서 상반된 - 知覺 또는 가치평가적 견해들을 나타내는 知的 배경을 지칭한다. 第Ⅲ節은 밀의 개혁주의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철학적 원리를 개혁의 목표, 개혁의 선행조건 및 개혁에서 가치들 - 자유, 정의 및 평등 - 간의 균형문제로 나누어서 다룬다. 밀이 사회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방법으로서 옹호했던 漸進主義(gradualism)도 위 제목 하에 포함되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第Ⅳ節에서 밀의 과학철학적 입장과 결부시켜 따로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 여기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문제 - 즉, 이 논문의 한계 - 를 간략하게 지적한다.

Ⅱ. 시대적 배경

밀은 당시의 관점에서 '急進的 改革論者'(radical reformers)의 부류에 속하였다. 이 급진적 개혁론은 18세기 계몽주의를 이어받은 벤담의 功利主義를 사

회적 개혁 프로그램으로 구현시키려는 시도에서 발원하는데, 밀 윗 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벤덤 자신과 그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스튜어트 밀의 부친인 제임스 밀이었다[Halévy(1972)]. 그러나, ‘급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특히, 그 말이 ‘革命’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이 당시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知的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이너(J. Viner)가 지적했듯이, 적어도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전의 18세기 영국은 대체로 경제적·정치적 및 도덕적 측면에서 現狀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었다[Viner(1949), p. 146]. 현상에 개선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영국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로 만든 과정에서 생긴 副産物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영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현상을 급격하게 변환시킬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밀은 1824년의 한 연설문에서 영국의 지배적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과거의 경험이 영국 憲政의 우수성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얼마의 이론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속해 왔던 동안 그것은 잘 기능해 왔으며, 여전히 잘 기능한다고 말해질 것이다. 왜 확실히 좋은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善을 택하는가? 왜 실제적 경험을 버리고 추상적 이론을 택하는가?” [Mill(1824a), p. 26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유럽 - 특히, 프랑스 - 과 미국에서 민주화·자유화를 향한 상황의 전개양상과, 다른 한편에서 영국사회 자체의 진화경로는 19세기에 들어와서 現狀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게 만든 많은 정책적 문제를 露시시켰다. 경제분야에서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한적 또는 특권적인 舊制度의 존속, 계급들간의 갈등, 빈곤의 문제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치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져 온 ‘평등화의 추세’에 따라 나온 대중의 민주화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8세기의 평온과 자기도취는 크게 흐트러졌으며, 영국은 말하자면 정통적 신념과 원리 체계가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관해서 밀은 “時代精神”(1831)이라는 논설에서 “지금의 시대는 과도기... 정통적 독트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과도기에는 識者層의 분열이 그들의 권위를 없애버리고, 비식자층은 식자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라고 썼다[Mill(1831), pp. 174, 177].

구제도와 독트린이 더 이상 현실적 적합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직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영국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상이한 견해가 있었다. [Mill(1826b) 참조]

첫째, 가장 지배적인 견해는 급진적 개혁론의 격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保守主義’였다. 보수주의는 귀족-지주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입장으로서는, 영국사회에 사회적 악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국이 수세기 동안 누리어 왔고 또 현재에도 누리고 있는 번영과 영광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불가피한 댓가라고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좋은 이유가 없으며, 現狀을 지탱하는 관습과 전통을 급격하게 변혁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실제보다 자신의 추상적 원리를 더 중요시하는 空想에서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위험한 인물로서 간주되었다.

둘째, 보수주의보다는 좀 더 진보적으로 새로운 세력의 요구를 기존의 파워 관계에 반영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절충적 입장이 있었다. 자유당(Liberal Party)에 의해서 대표되는 이 견해는 이를테면, 최선의 정부형태는 군주, 귀족, 중간계급 및 [가장 덜 관심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되는 군주제, 귀족정치 및 민주주의의 混合政體(mixed government)라고 주장하였다. 어떠한 단일 정부형태도 나름대로 중대한 결함을 지니기 마련이므로, 최선의 정부형태는 위 세 형태의 장점을 결합한 정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정체는 아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을 통해 영국의 憲政에 상당히 만족할 정도로 실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折衷論은 보수주의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세번째 입장은 現狀이 급격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 점에서 위 두 견해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 입장이 소위 급진적 개혁론인데, 여기에서 ‘급진적’이라는 말은 바로 위 두 견해에 상대적으로 붙여진 명칭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급진론자는 우선 비록 영국사회가 세계가 가장 진보된 나라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에 맞서 급진론자는 기존질서가 성취한 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개선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수주의는 既得權層의 '사악한 이해관계'(sinister interests)를 지키기 위한 구실로서 질서를 내세운다고 공격하였다.¹⁾ 반면에, 절충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균형이라는 말은 실상을 糊塗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사회는 실질적으로 귀족정치라고 비판하였다.²⁾

물론, 영국에도 아주 소수이기는 했지만, 급진론보다 더 급진적인 - 특히 사유재산과 시장경쟁의 원리가 부정된다 - 세력이 존재하였다. 이 입장은 오웬(R. Owen)과 리카디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급진론은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질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급진론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그리고 자유주의·민주주의의 원리 위에서 개혁을 꾀하였다.³⁾ 급진론자는 이 조건 위에서 추구되는 代議民主主義 - 나아가서 산업 민주주의 - 가 사회진보를 이루는 데 최선의 사회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급진적 개혁론의 역사적 位相을 기억하면서, 이제 벤덤에 이어 급진론의 대표자였던 밀의 개혁사상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철학적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개혁의 목표, 선행조건 및 가치원리

임의의 개혁사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개혁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추구되는 것이므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둘째, 개혁은 일정한 조건들 - 문명의 발전상태 및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품성 - 을 전제로 한다. 이 조건들은 나라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혁이

1) 밀은 “신분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盲信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 주요한 실패였다”고 말한다. [Mill(1826b), p. 383]

2) “하원의 2/3는 실제로 200개도 안 되는 貴族家門 - 대부분 지주인 - 에 의해서 임명되고 지명되었다.” [Mill(1824a), p. 264]

3) 그러나, 밀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쟁의 원리가 절대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朴世逸(1992) 참조.

시도되는 사회적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개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표(또는 가치)가 아니라, 複數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키고자 하므로, 당해 사상이 그것들간에 어떤 균형관계를 상정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방식 - 집권적 또는 분권적, 점진적 또는 혁명적 - 으로 개혁을 추구하는가. 이 절에서는 이 중에서 처음 세 측면에서 밀의 개혁 사상이 어떤 성격을 보였는가를 차례대로 알아본다.

1. 개혁의 목표

밀의 개혁사상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價値原理를 반영한다. 이것은 『自由論』(1859)과 『功利主義』(1863)에서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는데, ‘功利主義의 幸福論’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류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므로, 모든 사물과 인간행위의 가치 - 옳고 그름 - 를 판단할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하는 효용 (또는 일반적 便宜性)에 있다. 이 점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서술할 필요가 없지만 [Ten(1980); Skorupski(1989) 참조], 밀의 가치원리의 특징 - 현대경제학의 효용분석과 대비해서 - 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다음의 두 가지는 간단히 언급해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 효용의 실체적 내용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 경제분석과 달리 밀은 행복이 아주 다양한 실체적 요소들 - 物的 福祉, 자유·평등·개성 등의 정치적 권리, 知力·마음의 습관·도덕성 등 인간품성 - 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요성에서 그것들간에 질적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고차적 쾌락과 低級 쾌락 간의 그의 구분은 아마도 쾌락들간에 辭典式 선호등급(lexicographic orderings)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밀은 쾌락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획득되는가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공리주의는 오직 고상한 성품을 일반적으로 함양시킴으로써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Utilitarianism*, p. 904]. 그래서 사회진보는 인류행복의 증진으로서 정의되지만,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인간 자체의 품성 - 지적·감성적 및 도덕적 - 의 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밀은 제도변화가 가져오리라고 기대

되는 물질 복지효과 이외에 (또는 적어도 최소의 생존수준을 초월한 사회상태에서는 그보다 더 크게) 인간품성에 미치는 효과를 아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질서없이 진보를 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리주의적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이 진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질서유지에도 똑같은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밀은 질서와 진보를 이원적 - 나아가서 이율배반적 - 인 목표로 보는 견해를 겨냥하면서 양자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질서를 이미 존재하는 모든 종류와 양의 善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진보를 그 증가로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질서의 조건과 진보의 조건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 질서는 추가적 목적이 아니라, 진보 그 자체의 부분이며 수단이다.” [CRG, pp. 18, 22]

또한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現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더 나빠지는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끊임없고 항시 일어나는] 人間事의 흐름 -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모든 악폐, 모든 태만 · 게으름 · 나태 - 이 존재한다. 그것은 오직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금씩 - 훌륭하고 가치있는 방향으로 쏟는 노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지 못하게 된다. . 그 노력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비단 개선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일반적 사물의 경향을 악화시키는데, 일단 악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점증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상동, pp. 22-3]

이것은 개혁이 목표로 하는 진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행복을 위한 命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요컨대, 원리로서의 - 일시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 보수주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와 양립하지 않는다.

2. 개혁의 先行條件

밀은 어떤 종류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하는가는 단순히 추상적인 이념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우리가 현존하는 사회적 악폐를 지적하고 비판하며 개선시키는 데 주저해서는 안되지만, 개혁은 언제나 ‘실천가능성’(practicability)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밀은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상하는 사람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① 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지배하는 거시적-역사적 추세의 파악. 이것은 개혁구상에 있어서 불가결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② 개혁조치로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의 품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

먼저 첫번째 측면에 관해서 밀은 우선 무엇이 이상적인 제도인가는 사회상태에 상대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Mill(1840), p. 244; *Autobiography*, pp. 109-10; *CRG*, 제4장]. 그래서, 그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라고 보았던 대의 민주주의조차도 모든 사회상태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아니다. 이를테면,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회상태에서는 사회질서의 제일차적 요건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권위에 국민이 복종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행사되는 專制政治가 불가피하다. [*CRG*, pp. 30-3]

그러면, 밀은 당시 역사의 밑바탕 힘이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1835, 1840)에서 피력된 토크빌(A. de Tocqueville)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근대사회에는 ‘조건 of 평등’(equality of conditions)으로 나아가는 불가항력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산업과 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商業文明이 이 평등화의 경향을 낳았는데, 그것은 다시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추세를 낳았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파워는 家門과 혈통으로부터 크게 切離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상업문명의 발전과 민주화의 추세는 그 나름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밀은 전자의 문제로서 사회계급들간의 갈등과 불평등, 하층계급의 빈곤 및 이기주의의 만연을, 그리고 후자의 문제로서는 국가권력의 과도한 팽창과 다수의 독재(the despotism of the majority)를 들었다.

그는 이 문제들 자체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인간품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상업문명은 啓蒙的 自利原理(the principle

of enlightened self-interest) - 근면 · 성실 · 절약 · 신려 등 - 를 통해서 하급 덕성은 증진시키지만, 이기심을 지배적인 동기로 만듦으로써 사람들간의 感性的 結紐는 크게 약화된다. 반면에, 대중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이 군중 속에 매몰되는, 그 결과 '탁월성의 결여'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⁴⁾

개혁은 바로 인간의 생활조건 및 그 자신의 품성 모두에서 이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구하여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고려사항에도 똑같은 관심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좋은 품성은 개혁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개혁의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밀은 좋은 정부의 요건으로서 政治機構 자체의 품질 이외에 국민의 좋은 품성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좋은 품성은 정치기구를 작동시키는 動力을 공급하므로 좋은 정부의 첫번째 요건이다.… 騎手없이는 고삐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정치적 제동장치가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견제기능을 맡은 사람이 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하거나 태만하다면, 그리고 公衆 - 전체 견제기구의 주원천인 - 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수동적이거나, 너무 부주의해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최선의 행정기구로부터 득불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CRG, pp. 25, 26-7]

밀이 제도개혁에서 인간품성에 미치는 효과를 무엇보다도 강조한 점이나, 이상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개혁에 찬동의 뜻을 표하면서도 당시의 조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 - [Mill(1825b) : *Principles*, “Appendix A”, p. 985 참조] - 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3. 개혁에서 가치들간의 균형관계 - 自由, 正義 및 平等

행복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래서 개혁이 행복의 증대라는 의미에서 진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속에

4)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 전체 사회의 막대한 열정의 에너지가 조그만 재산의 축적이라는 작은 소망의 추구와, 조그만 즐거움을 성급하게 낙아채는데 傾注되고 소진된다.… 인류는 점점 더 사상이나 행위에서 통속적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도덕적 용기와 독립의 자존심을 상실할 위험에 있다.” [Mill(1840), pp. 231, 240]

는 생활조건과 의견을 달리하는 다수의 상이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추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람직한 규칙에 관한 기준으로서 통상 제시되어 왔던 원리가 자유, 정의 및 평등이다. 따라서, 밀이 이 원리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개혁사상을 특징지우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이미 기존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밀이 어떻게 위 세 원리 간에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는 데 그친다.

(1) 自由의 원리

먼저, 자유의 원리에 관해서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개선의 유일한 [항구적이고 틀림없는] 원천은 자유이다. 그 이유는 자유에 의해서 개인의 수만큼 많은 개선의 독립적인 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적 원리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 자유 또는 개선의 지향 - 관습의 지배에 적대적이며, 적어도 그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수반한다... 언제 진보가 멈추는가? 그 국민이 개성을 소유하지 못할 때... 내가 판단하기에는, 유럽의 진보적이고 다면적 발전은 이 다수의 길에 완전히 힘입었다.” [*Liberty*, pp. 1004, 1006]

밀은 “모든 현명하거나 고상한 것을 창안하는 것이 개인들 -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독창적인 어떤 개인 - 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각자의 성격이 공정하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인격체들이 상이한 삶을 설계하고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요건하다”고 주장하였다[상동, pp. 1001, 998].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밀은 “실제생활의 큰 일에서 眞理는 상반되는 것을 화합시키고 절충하는 일이어서, ... 오직 의견의 다양성을 통해서만 진리의 모든 측면이 공정하게 조명될 기회가 존재한다”[상동, pp. 985-6]는 데에서 찾았다. 이처럼 그에게는 자유의 원리가 진보를 성취하는 최선의 근본적인 사회규칙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아주 본원적인 진보의 원동력이어서, 얼마간 “자유로운 제도를 가진 나라는 無政府狀態에 가까운 그렇게 불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富를 축적했으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Principles*, p. 881]

그러나, 물론 개인에 의한 자유의 행사가 무조건적일 수도 무제한적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타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는 “타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들이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조항 하에서 “자신의 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할 권리를 뜻한다[*Liberty*, p. 958]. 이것은 사람들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를 제기시키며, 두번째 원리인 正義의 문제로 이끈다.

(2) 正義의 원리

그러면, 밀은 어떠한 正義觀을 갖고 있었는가? 밀의 정의관은 『공리주의』에서 피력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소극적 정의’(negative justice)에 기초를 두고 있다[*Utilitarianism*, 제5장]. 이 견해에 따르면, 정의는 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善을 베푸는 데 - 즉, 적극적 정의(positive justice)에 - 있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데 있다: “파위가 문명사회의 어떤 구성원에게 - 그의 의지에 반하여 -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들에 대한 害를 방지하는 데 있다.” [*Liberty*, p. 956]

이 차이로부터 완전한 권리(perfect rights)와 불완전한 권리 간의 구분이 생긴다. 완전한 권리는 어떤 개인이 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존중하도록 요구·강제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배상이나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면에, 불완전한 권리는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好意를 받고자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는 권리이다. 결국, 정의가 지켜진다는 것은 사회가 완전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은 正義가 이렇게 定義되어야 하는 이유를 ‘安全’(security)이 일반적 효용에 근본적으로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에서 찾았다.

“안전은 누구도 결여하고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한 순간을 넘어 惡을 피하고, 모든 선의 가치를 보존함에 있어서 안전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박탈당하게 방치된다면, 우리에게 단지 한 순간의 만족밖에는 가치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Utilitarianism*, p. 939]

요컨대,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먼 장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축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자유의 원리와 결합시켜 말한다면, 밀의 기본 格律은 ‘정의와 양립하는 최대의 자유를 주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원칙은 효용의 원리와 독립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일정한 自然權(natural rights)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밀의 기본격률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완벽하게 규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기는 사회적 결과가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평등 또한 인간사회가 지녀야 할 속성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었는가?

(3) 平等의 원리

그는 ‘機會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과 ‘結果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평등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 즉,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빈곤의 문제를 제외하고 - 전자에 관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평등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정성(impartiality)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출발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결과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나는 사회적 신분의 경로를 인위적으로 作出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 경쟁자들에 대한 입법의 공정성은 그들이 공정하게 출발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지, 빠른 자와 느린 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전자에게 핸디캡을 부과하는 데 있지 않다. ... 좋은 정부가 교육과 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 기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다면, 사람들의 벌이에서 생기는 재산의 차이는 불만의 정당한 대상이 아니다.” [*Principles*, pp. 810-1]⁵⁾

이러한 생각은 사유재산의 정당성, 기본적 과세원리로서 ‘희생의 평등’ 등에

5) “누구도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도록 -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나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평등원리의 誤用이다. [상동, “Appendix A”, p. 980]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Principles*, II. 2 및 V. 2 참조]. 그것은 또한 선거권 등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권자의 자질에 따른 차등선거제 - 複數投票制(plural voting) - 를 옹호하면서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모든 정치참여에서 배제된 사람은 市民이 아니다. 그는 시민의식을 갖지 못한다. ... 정치적 권리 -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권 - 의 보유와 행사가 대중의 마음을 도덕적·지적으로 훈련시키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은 전혀 다른 명제이며, 나의 판단으로는 전자의 명제가 참이고 중요한 만큼으로 명백하게 거짓이다. 나는 만인이 자신의 정부에 대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일에 동등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러한 파위에 대한 요구권은 그것을 유익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격에 따라 상이한 사람들간에 다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사회가 인정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에서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된다면, 나는 모두가 인간으로서 동등한 가치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Mill(1859b), pp. 322-3: 강조 밀]

물론, 밀이 실제에서 기회의 평등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지각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꾀해야 하는 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그가 가상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는 한, 모든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도 좋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한 사회적 과정의 결과는 다음 사회적 과정이 시작되는 초기조건을 이루므로, 개인들이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고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심각한 핸디캡이 되는 - 특히, 새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 불평등에 대해서는 사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貧困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밀은 빈곤의 退治가 가능하면 자유와 정의의 원리에 맞추어서 도움을 받는 빈민의 독립적 발전과 아울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Principles*, 제2편 제 7·8장: Mill (1845): Mill (1869) 참조]

IV. 개혁의 방법 - 漸進主義

1. 진보의 경향과 개혁의 의의

개혁의 가능성은 당연히 사회진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행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人間事가 전적으로 기계적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되지도 않고, 인간의 성격이 생활상황에 의해서 전적으로 - 그리고 不可還元的으로 - 형성되지도 않는다. 경제적·사회적 힘이 비록 가장 큰 힘 중에 속하지만, 우리 인류의 경로를 모습지우는 유일한 힘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언제나 사회적 상황의 단순한 징후와 결과인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역사에서 한 파워이다.” [Mill(1840), p. 243]

그렇다고 해서 밀이 정부형태와 같은 사회제도를 “전적으로 발명과 고안의 문제로 간주[하여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인간이 그것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선택권을, 그리고 어떻게 또는 어떤 패턴으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CRG, p. 3] 設計論을 신봉한 것은 아니다. 그는 설계론을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생적 산물”이라고 보는 有機的 成長論과 대비하면서, “어느 것도 완전하게 옳지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상동, p. 4]는 中庸的 입장을 취하였다.

개혁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개혁의 사회적 긴급성과 아울러 -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 당해 국민이 개혁을 얼마나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에 의존한다. 그런데, 밀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능력 - 知的 및 도덕적 - 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를 더 완벽하게 만들 가능성이 점증한다는 낙관론을 지니고 있었다[Robson(1968), 제7장: Kurer(1991), 제2장 참조]. 밀은 역사의 진보가 인간사회의 자연적 발전법칙에서 나오는 내재적 속성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지만, 인간역사에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진보경향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피력하였다:

“인류가 놓여 있는 상황은 그 자체의 법칙과 인간성의 법칙에 따라서 작

용하면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지만, 인간이 다시 자신과 後世代를 위한 상황을 造形하고 모습지운다.… 일반적 경향은 [간혹 그리고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개선에의 경향 - 더 좋고 행복한 상태에의 경향 - 이고, 계속 그러하리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Logic, pp. 913-4]

개혁은 이 진보경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밀은 이 과정에서 지식의 발달이 아주 -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가장 -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 [사회과학의] 도움에 의해서… 자연적 진보를 가속화시키고, 그 내재적 문제나 惡을 교정하고, 그리고 그 전개에 필히 수반되기 마련인 위험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 수단이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을지를 성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동, pp. 929-30]

요컨대, 밀은 사회진보가 구조적으로는 ‘사물의 경로’에 따라 자생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지만 - 그렇지 않다면, 그의 자유와 정의 원리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 그 때문에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의 중요성이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진보를 성취하는 데에는 결코 우리의 熱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철한 지식과 현명한 판단을 토대로 하는 행동력이 요구된다. 개혁을 고취시키는 힘이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열망으로부터 나올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밀은 이 점을 망각하는 것이 폭력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개선을 꾀하려는 革命論의 기본 오류라고 보았다.

“아주 많은 사회주의자의 발동원리는 미움이다. 더 점진적인 개선을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들은 혼돈이 세계재건에 착수함에 있어서 아주 가장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그러는 가운데 많은 기간에 걸쳐 갈등·폭력 및 強者에 의한 약자의 專制的 억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Mill(1879), p. 352]

2. 漸進主義의 근거

위에서 우리는 밀이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체제전복을 꾀하는 혁명에 의해서 보다 점진적·평화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원했다

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밀은 어떤 근거에서 개혁의 방법으로서 점진주의를 옹호했는가? 비록 밀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독립적인 論考를 전개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의 저작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1) 인간성의 多面性和 사회현상의 복잡성

점진주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밀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견해와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우선 밀은 “인간 자신에 관계되는 과학들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연구대상”[*Logic*, p. 833]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성은 多面性を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행동은 다른 동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임의의 한 동기에 의해서 결코 지배되지 않으며, 임의의 주어진 효과는 그것을 낳는 경향이 있는 원인들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필연적이다. 일어나는 그 어떠한 행동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달리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상동, p. 839]

다음에, 인간성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다면적이고 복잡하다면, 당연히 다수의 인간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되는 社會現象은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상동, p. 875]. 그래서,

“사회현상은 多元性(plurality)이 최대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모든 사회현상 - 안전, 富, 자유, 좋은 정부, 公的 德性, 일반적 지성 - 의 원인들은 무한히 많다. ... 우리는 앞으로 수천년 동안 사회의 역사를 天體現象처럼 예측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회의 조건과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많고 항구적으로 변하며, 그 원인의 수는 우리의 한정된 계산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상동, pp. 883-4, 877 : 또한 *Logic*, p. 894 참조]

밀 자신이 정치경제학의 방법으로서 옹호하고, 이후의 경제학 발전에서 정통과 방법으로서 확립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演繹的 方法’(the deductive method)이 사회과학 일반으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逆 演繹적 방법’(the in-

verse deductive method)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연역적 방법은 특정한 인간성의 원리 - 즉, 自利追求의 公準 - 를 가정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경험적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증명하는 절차를 취한다. 반면에, 역 연역적 방법은 “특정한 경험들로부터 잠정적으로 결론을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간성의 원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 명제를 증명하게 된다. [상동, p. 897]

방금 살펴본 밀의 과학철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는다. 첫째, “우리는 특정한 원인과 공존할지 모르는 모든 因子들을 좀처럼 근사적으로조차 알지 못하며, 그렇게 많은 결합적 요소들의 집합적 결과는 더군다나 알지 못하기 때문”[상동, p. 898]에, 심리학과 사회과학은 엄밀과학일 수 없으며, 단지 傾向의 科學일 수밖에 없다.

둘째, 위의 논점은 사회과학에서 ‘歷史性’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그것은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우리가 大長期的으로 인류사회 전체 - 또는 적어도 그 큰 부분 - 에서 관철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다. 밀은 근대 이후 19세기까지 이 거대한 흐름이 상업문명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등화의 경향에 있다고 파악했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실증적 예측(positive prediction)은 “임의의 주어진 사회의 요소들 또는 여건”[상동, p. 900]이 미리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식 - 비록 계속 진보해 왔기는 하지만 - 이 항상 불완전하며, 그 결과 어떤 고정적인 추상적·이념적 사상체계로부터 도출된 전체적 설계에 맞추어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진리의 모든 측면들은 오직 의견의 다양성을 통해서만 공정하게 조명될 수 있다.… [그래서] 단번에 구질서를 새 질서로 대체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 아직 어떠한 실험에 의해서도 확증되지 않은 - 자신의 私見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서 현 체제 하에서 실현된 善과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버리고,… 그 시도에 저항한다면 가공스러운 流血과 비참이 뒤따르는 모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Liberty, p. 986: Mill(1879), p. 336]

이러한 혁명적 방법 대신에, 사회상태를 개선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특정한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그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점차 그 적용범위를 나라 전체에 확대시켜 나가는 실험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확실히, 밀에게는 진리탐구의 길과 사회개선의 길 간에 거의 완전한 相似性이 존재한다. 진리가 다양하고 - 흔히 상충되는 - 관점들이 자유롭게 대결하여 그 결과 최선의 것이 선택됨으로써 가장 잘 밝혀지듯이, 사회개선의 가능성도 그것을 위한 다양한 - 마찬가지로 흔히 상충되는 - 노력들이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가장 잘 증진된다.

“실천적 정치의 목표는 임의의 주어진 사회에 유리한 경향을 낳는 상황을 가능하면 많이 조성하고, 해로운 경향을 낳는 상황은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Logic, p. 898]

밀은 스스로 ‘나의 유토피아’ - 즉, 협력공동체로서의 산업 민주주의 - 라고 칭한 것이 바로 이 방식에 의해서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Principles, 제4편 7장 및 “Appendix D”: 朴世逸(1992) 참조]

(2) 개혁과 국민의 品性

다음에, 밀의 점진주의는 사회진보가 좋은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훌륭한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機構가 제 혼자만의 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메커닉스에서와 같이, 정치에서도 엔진을 계속 작동시키는 힘은 기계 외부에서 구해져야 한다.... 국민의 일반적 성향이 각 개인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일반이익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일 때에는 늘 [그러한 상태에서] 좋은 정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정부의 첫번째 요소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덕성과 知力이다.” [CRG, pp. 5,11,25]

우리가 개혁의 선행조건에 관한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민이 그것을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밀

이 ‘좋은 정부’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제도적 장치의 우수성과 더불어 제도의 ‘精神’(the spirit of institutions)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순(1992) 참조]

그런데, 임의의 時空에서 소망되는 개혁을 흡수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이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모습이 理想을 단번에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과 質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을지 모른다. 停滯性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인도와 중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열망과 욕구 - 근대문명의 원동력이었던 - 까지도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 또 강렬한 개선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인간성은 아주 低劣한 것이어서”[Mill(1845), p. 295] 그것은 좁은 自利의 원리들 안에서 발휘되기 쉬운 것이다.⁶⁾ 그래서,

“고상한 행동원리가 평균적인 인간의 행위에서 으뜸가는 지배적인 동기라고 전제하는 어떠한 정부형태도 합리적이 [아니며],... 社會更生計劃은 평균적인 인간을 고려해야 하고,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덕성에서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많은 나머지 사람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CRG, p. 98 : Mill(1879), p. 345]

밀은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이 ‘教育’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변화를 꾀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인간품성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이다. 여기에서 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의 개념은 통상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활동을 통해 얻는 배움의 경험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천적 교육의 의의는 사람들을 “개인과 가족의 좁은 울타리로부터 끄집어내서 그들이 공동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 - 그들이 公的 또는 準公的 동기에서 행동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서로 떼어 놓기보다는 연합시키는 목표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단련시키는 것” [Liberty, pp. 1036-7 : 또한 Mill(1840), p. 205 참조]에 있다.

6) 밀은 통상적인 自利原理가 유일한 인간성의 원리는 아니지만, 지금의 사회적 조건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그것이라고 보았다. *Logic* (p. 926), Mill(1879: p. 339), *Liberty* (pp. 1008-9), Mill(1859b: p. 336) 및 Mill(1825: p. 324)을 참조하기 바람.

이러한 실제적 훈련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을 公衆의 일원으로서 느끼고, 公衆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은 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느끼게 된다. 이 공공정신의 수련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사회에 대한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못한다”[CRG, p. 54]. 투표나 自治行政과 같은 정치적 참여와, 경제분야에서도 근로자들이 기업의 이윤분배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비록 현재에도 일반적 이기심에 대한 많은 개별적 예외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공공정신이 훨씬 더 배양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교육이 모든 技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며,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중의 하나”[Mill(1879), p. 348]라는 데 있다.⁷⁾ 그래서, 이를테면, 밀이 공산주의적 이상에는 완전히 동의하면서도,⁸⁾ 그 현실성에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공산주의가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인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확실한 한 가지는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및 지적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아주 어렵고,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그것으로 이행하는 것은 단지 느낄 수밖에 없다. ... 준비되지 않은 인구를 공산주의 사회 속에 밀어 넣는 것은 - 비록 정치적 혁명이 그러한 시도를 할 파워를 준다고 할지라도 -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상동, pp. 348-9]

(3) 安全의 보장

밀은 인간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安全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제일차적인 요건이라는 근거에서 점진주의를 옹호한다.

“顛覆의 계엄을 하려는 사람은 지금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

7) “큰 일에서 실제로 협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 점진적으로 그 훈련을 받아야 한다.” [Mill (1836), p. 167]

8) “인류가 대체로 타인보다 자신을 애호한다는 것이 더 이상 참이 아닐 때, 그 순간부터 공산주의는 비단 실행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옹호될 수 있는 유일한 사회형태이다.” [CRG, p. 44]

람으로부터 그것을 보존하는 현재의 수단을 억지로 박탈하려는 것이며, ... [그 流血의 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전혀 개의치 않음이 틀림없다.” [상동, p. 336]

즉, 혁명에 의한 체제전복은 재산권을 포함해서 기존의 기본적인 사회규칙이 계속 적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적법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절약·저축한 사람들에게 不義를 범하는 것이다. 자유와 더불어, 재산의 안전은 생산증대의 주요한 조건이자 원인 중의 하나이다: “불완전한 안전상태가 빚는 조심과 걱정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면, 그의 능력이 그 자신과 타인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노력에 자유롭게 고용되는 한편, 동일한 원인이 그를 확고부동하게 사회적 존재로 만든다” [CRG, p. 20].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산제도상 일반적으로 時效權(prescription)이 인정되어 왔던 것도 같은 논리에서이다:

“재산취득이 설령 부당한 경우에도 오랫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부활시킴으로써 善意의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래의 부당성을 응징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큰 不義이며, 거의 언제나 더 큰 私的 및 公的 해악을 초래한다.” [Principles, p. 217]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이 점진주의의 노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필요성은 인간의 知的·도덕적 불완전성 때문에 진보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두고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인간 능력의 한계는 또한 사회정의의 관념도 동일한 방식으로 定義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 - 또는 진보 - 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에서 필요한 유보조건, 즉 필요로 되는 善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미 보유된 그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 - 또는 가능하면 害를 최소화해야 한다 - 는 조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CRG, p. 33]. 한 마디로, 점진주의는 개선을 위한 인간의 의식적 노력도 進化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한다.

이 절을 끝맺기 전에 밀의 개혁사상을 점진주의로서 특징지우는 우리의 해석에 부수적으로 두 가지 유보조건을 들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밀의 확고한 多元主義의 世界觀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분적으로 역사관에서 마르크스의 경우

에서와 같이 - 그러나, 가설의 실체적 내용에서는 정반대의 - 제일차적 인자(the prime agent)에 의한 決定論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역사와 인간성에 대한 증거는 결합적으로 사회적 발전의 인자들 중에서 그렇게 우세한, 그리고 거의 으뜸가는 사회적 요소가 정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해 갖게 된 신념의 성격을 포함해서 思辨的 能力(speculative faculties)의 상태이다...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 인류의 어떤 부분에서 조건의 - 모든 상당한 변화가 [외부적 힘에 의해서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지식상태나 그들의 지배적 신념이 비례적으로 변화해 왔다.” [Logic, pp. 926, 927]

다른 하나는 밀이 개선의 마지막 수단으로 ‘革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변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해도 좋을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온건한, 아니면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 시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은 언제나 평화의 수단에 호소해 왔으며, 여전히 그렇다... 그러나, 온건한 수단은 시험되었다. 만약 우리 통치자들이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한다면, 暴動을 자극하는 것은 개혁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만약 온건한 수단이 거듭되는 실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기의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폭동 - 국민의 마지막, 그리고 위험스러운 수단인데 - 의 害惡이 그 인류의 영원한 敵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Mill(1824a), p. 270]

이 생각은 보통 激情에 사로잡히기 쉬운 청년시절 밀의 논쟁적 연설에 국한하여 나타나므로, 그의 일관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계속적으로 상당한 - 물론, 밀이 기대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멀지만 - 개혁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상적으로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가 혁명에 호소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V. 맺음말

존 스튜어트 밀 자신이 특징지었듯이, 그가 활동한 시기는 舊體制로부터 새로운 사회질서로 옮겨가는 일종의 과도기였다. 19세기에 서구 자본주의는 융성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합당한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 과도기에 특징적인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 - 계급갈등, 귀족·지주 계급에 의한 정치지배, 정의와 효율성에 위배되는 구제도의 잔존 등 - 이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밀은 이 상황에서 혁신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적 시민질서의 전복을 통한 새로운 사회질서 - 즉,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 의 창출을 주장한 혁명론자와 달리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사회진보를 꾀하는 점진주의적 개혁의 길을 선호하였다. 밀에게 개선에의 모든 노력은 무엇보다도 '실천가능성'에 바탕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가능성이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는가에 대한 밀의 답은 人間性과 사회적 인과성에 대한 그의 철학적 견해와, 또한 이 견해와 깊이 연계되어 있는 그의 가치원리 - 사회적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에 관한 - 에 기초해 있다. 밀이 보기에, 임의의 시점에서 제공되는 개선책은 인간성의 원리, 사회적 인과원리 및 가치원리가 주어져 있을 때 '상황적 조건'의 함수였다.

첫째,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밀은 인간을 多元的 존재로 파악했으며,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사회현상은 언제나 다수의 원인들이 다수의 방식으로 결합되는 복잡성을 갖는다고 이해하였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어떤 이상주의적 계획에 짜맞추려는 시도는 두 기본 측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였다: 1) 動機의 문제에서 현존하는 인간성이 그러한 시도를 실행하는 데 적합한가? 2) 知識의 문제에서 인간이 사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밀이 개혁의 선행조건으로서 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지배하는 거시적·역사적 추세를 통찰력있게 파악할 것과 아울러 知的·도덕적 측면에서 국민의 품성이 개혁을 수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밀은 교육 - 통상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적 생활에서 공공정신을 배양시키는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성취되는 교육도 포함하여 - 을 개혁의 가

장 중요한 수단이자 또한 목표로서 역설해 마지 않았다.

둘째, 밀은 正義 유지와 안전 보장이라는 근거에서 점진주의적 개혁노선을 옹호하였다. 밀에게 자유와 정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정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원리였다. 이 때문에, 그는 평등이 사회의 가치원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그것은 결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에서, 밀은 인격과 재산의 안전 보장이 자신의 노력과 독창성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적 틀 속에서 개인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사회는 아주 크게 자생적 힘들에서 의해서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추구된 논의의 방향이 온전한 의의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 주요한 항목 - 즉, 이 논문의 한계 - 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밀의 개혁주의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철학적 원리들에 내부적으로 어떤 난점이 존재하는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밀의 철학적 원리가 두 기본적인 측면에서 숙제를 남겨두었다고 생각한다: 1) 공리주의에 대한 權利論의 도전 - 가장 중요하게, 설령 사회적 총효용이 줄어들더라도 사회가 보호 내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李 在律(1995), 제4장: Williams(1973): Sen and Williams(1982): Skorupski(1989) 참조]: 2) 한편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통치를 맡아야 한다는 能力原理와, 다른 한편에서 국민 전체의 의지가 통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參與原理 간의 갈등 [Thompson(1976) 참조].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밀의 개혁주의를 다른 주요한 사회사상체계들과 비교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만, 밀의 개혁주의 사상이 갖는 상대적 強健性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단계는 아마도 밀의 개혁주의를 比較經濟體制論과 연결시켜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지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 적어도 필자의 직관적 이해에 있어서 - 인간과 사회에 관한 밀의 哲學觀이 오늘날의 사회과학과, 그리고 특히 한국사회에 아주 큰 適實性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 위에서 쓰여졌음을 부언하고 싶다.

參 考 文 獻

趙 淳 外 (1992), 『존 스튜어트 밀 연구』, 민음사 (대우학술총서).

趙 淳 (1992),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사상과 한국”, 조 순 외(1992) 所收.

朴 世逸 (1992),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개혁론”, 조 순 외(1992) 所收.

朴 興基 (1992), “존 스튜어트 밀과 사회주의”, 조 순 외(1992) 所收.

李 在律 (1995), 『경제윤리』, 민음사 (대우학술총서).

李 之舜 (199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 조 순 외(1992) 所收.

Burt, E. A. ed. (1967), *The English Philosophers from Bacon to Mill*, The Modern Library.

Halévy, E. (1901-4), *The Growth of Philosophic Radicalism*, A. M. Kelley Publishers, 1972.

Kurer, O. (1991), *John Stuart Mill: The Politics of Progress*, Garland Publishing Co.

Mill, J. S. (1824a), “Parliamentary Reform(1)”, in *Collected Works (CW)*, Vol. 26, 1988.

_____ (1824b), “Parliamentary Reform(2)”, in *CW*, Vol. 26.

_____ (1825), “Cooperation: Closing Speech”, in *CW*, Vol. 26.

_____ (1826a), “The British Constitution(1)”, in *CW*, Vol. 26.

_____ (1826b), “The British Constitution(2)”, in *CW*, Vol. 26.

_____ (1831), “The Spirit of the Age”, *Examiner*; in Williams (1976).

_____ (1836), “Civilisation”, in *CW*, Vol. 18.

_____ (1840), “M. de Tocqueville on Democracy in America”, *Edinburgh Review*, 72; in Williams (1976).

_____ (1843),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CW*, Vols. 7 & 8, 1973-4.

_____ (1845), “Claims of Labour”, *Edinburgh Review*, 81; in Williams (1976).

- Mill, J. S.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W, Vols. 2 & 3, 1965.
- _____ (1859a), *On Liberty*, in Burt (1967).
- _____ (1859b), "Thoughts on Parliamentary Reform", in CW, Vol. 19.
- _____ (1861),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edited by C. V. Shields, The Liberal Arts Press Inc., 1958.
- _____ (1863), *Utilitarianism*, in Burt (1967).
- _____ (1873), *Autobiography*, The Liberal Arts Press Inc., 1957.
- _____ (1879), "Chapters on Socialism", in Williams (1976).
- _____ (1988), *Journals and Debating Speeches*, CW, Vol. 26.
- Robson, J. M. ed., *John Stuart Mill: Collected Works*, 29 Volumes, Uni. of Toronto Press.
- _____ (1968), *The Improvement of Mankind: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John Stuart Mill*,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en, A. and Williams, B. eds. (1982), *Utilitarianism and Beyond*, CUP.
- Skorupski, J. (1989), *John Stuart Mill*, Routledge.
- Ten, C. L. (1980), *Mill on Liberty*, Clarendon Press.
- Thompson, D. F. (1976), *John Stuart Mill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iner, J. (1949), "Bentham and J. S. Mill: The Utilitarian Backgroun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9 (March); in Wood (1987), Vol. I.
- Williams, B. (1973), "A critique of utilitarianism", in J. J. C. Smart and B. Williams (eds.),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 Press.
- Williams, G. L. ed. (1976), *John Stuart Mill on Politics and Society*, Fontana Press, 1976.
- Wood, J. C. (1987), *John Stuart Mill: Critical Assessments* (4 Volumes), Croom Helm.